

하나됨과 나눔

“ 사랑,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

< 베드로전서 4장 8-9절 >

- 2023년 여름공동체생활 기간은 7월27일(목) 오후 6:30 부터 30일(일) 오후 6:00 까지 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십시오. 자세한 일정과 준비사항은 방별로 알려드립니다.
- 멧쟁이학교 종강여행이 11일(화)~14일(금) 속초로 다녀옵니다.
- 공동체학교들의 학기말 정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각 학교의 방학 날짜를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멧쟁이학교(14일) 어린이학교(17일) 꾸러기학교(20일)
- 지역별사랑방 방모임은 14일(금) 종강입니다. 방별로 참고하셔서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체운영위원회 38차 정기회의가 오후 2시에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채영대 집사 · 장지영 권사 (감사)
 조장희 · 이재신 집사 (감사)
 서병욱 · 임진숙 집사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0 - 28 호

2023년 7월 9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육과 훈련

한 해를 지날 때, 삶의 흐름을 가지고 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달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 달은 교육과 훈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훈련이라는 말은 이전에는 성장기 학생에만 주로 어울린다고 생각되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세대가 평생을 걸쳐서 생각하는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교육은 가르치고 기른다는 말입니다. 보통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 자라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성장을 의도하고 있어서 인격을 길러주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변화를 기대하는 활동이며 상당한 기간 배움을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훈련은 교육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기본자세나 동작 등을 되풀이하여 익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훈련은 보다 구체적이며 실용적인 내용을 다루게 되겠지요.

이것은 기독교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각 사람의 삶에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훈련은, 보다 구체적인 신앙 행위로 나타납니다. 기도 훈련, 말씀 훈련을 비롯하여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인간관계 훈련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형성이라는 교육목적의 이루기 위해서 오랜 시간에 걸친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그렇지만 요즘 사람들은 교육과 훈련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꺼이 동참하기보다는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더 많아 보입니다. 아마도 교육은 자신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제공되어 자기 변화를 전제로 하기에, 그리고 본질적으로 배움이라는 것은 자기 주장을 다소간 내려놓

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선택이 매우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기에, 본인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참여를 꺼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자극은 피하고 싶은 것이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니 인격의 변화를 전제로 한 기독교 교육은 더욱 쉽게 외면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살아가다보면 계속해서 변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것을 더욱 느끼게 되지요. 사는 환경이 바뀌고, 삶의 상황이 바뀌고 또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화에 맞추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변화를 마주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원치 않더라도 배움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하나 됨을 강조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것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만만하거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는 자기를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자기를 비추어보아야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성숙된 인격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공동생활과 공동체 생활이 주는 큰 유익입니다. 자신을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땅은 살아가기 더욱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있어서도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스스로 변화를 선택하는 삶, 그리고 자기 선택에 따라서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한주간의 말씀

“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니다. ”

<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438장 322장 / 408장

기도 : 진정행 권사

성경 : 역대지하 19장

제목 : 마음에 중심이 잡힌 사람 여호사밧

1. 내용: 전쟁에서 무사히 돌아온 여호사밧이 내정을 든든하게 하였
다.(What)

<문단구분>

1~3절 예후의 예언

4~11절 여호사밧이 내정에 힘쓰다

2. 의미: 실수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였
다.(Why)

- 1)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저질렀다.
- 2)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지키시고 돌보셨다.
- 3)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도, 사법개혁을 단행하였다.

3. 적용: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말자. (How)

- 1) 사람보다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자.
- 2)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자.
- 3)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인도하심

미국여행은 정말 기대 이상 이하도 아닌 어중간한 자리에 있는 여행
이었다.

이 여행에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편식도 하지 않게 되는 등등
참 재미있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여행이었는데, 제일 힘
 들었던 것을 꼽자면 우리 학년끼리 싸웠던 것이고, 제일 재미있었던 것
 은 미국의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것도 재미있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엔 우리는 먹는 것을 참 여러 가지로 먹고 마
 시고 한 것 같다.

만약 미국 여행 뭐 5년 뒤에 또 가볼래 라고 하면 진짜 갔다가 살이
 20kg정도 썩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심지어 미국은 도넛이 맛있지만 너무 달아서 먹기 힘든 것
 같다.

미국은 처음엔 무서웠지만 갔다가 돌아올 땐 무섭지 않아졌다.

나는 미국이 좋다고 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나쁘다고 생각하지
 도 않았다.

가서도 노작을 하니 조금 힘들었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푸른꿈사랑방 김예흠 학생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예배의 찬송
- *기원의 기도
- *기원찬송

시편 20 : 7-9
14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 *용서의 말씀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로마서 6 : 10-11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219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히브리서 10 : 19-25
331

“ 담대히 드리는 예배 ” 권재만 목사

설교자
비움사랑방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봉헌기도
- *영광찬송
- *위탁의 말씀
- *강복기도

484

주님의 사랑이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정낙귀 정혜정/ 봉헌위원 : 정성미/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예 배

공동기도문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가기 원하오니
저희를 가르치시고 이끌어주소서. 아멘

담대히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히브리서는 구약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메시아가 되셨는지를 증언하는 편지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천사나 모세, 여호수아나 아론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며 성전과 제사를 온전히 완성하신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완전하신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우리는 확고한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변함없는 약속의 희망을 놓치지 않도록 굳게 잡읍시다. 서로를 돌아보아 더 많이 사랑표현을 하고 선한 일에 대해 칭찬하고 더욱 그렇게 살아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모여 사는 것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의 생활과 사랑방에서의 나눔 속에서 말씀의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모여 살아감으로 완성해 나갑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참여합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권재만 목사 / 기도 : 차현주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폭우와 무더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 탓인지 아픈 꾸러기들이 여럿 있습니다. 약을 가지고 학교로 오는 친구도 여러 명 있었고 아파서 학교에 오지 못하는 친구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계획했던 일정 중 산책과 물총놀이 는 취소했습니다.

그렇다고 재미없고 심심한 일주일을 보냈다는 말은 절대 아니지요! 지음이의 생일잔치를 위해 각자 정성스럽게 생일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생일잔치하는 날 쓸 고깔모자도 만들었지요. 큰 블록을 이용한 만들기와 역할놀이는 매우 다양합니다. 계단을 만들어 번갈아 뛰어내 리기도 하고 비행기, 배, 자동차 등 탈 것이 되어 여기저기를 다닙니다. 공연장이나 식당, 카페가 되어 손님을 초대하고 공연이 열리거나 음식 주문을 받습니다. 병원과 미용실 변신은 빼놓을 수 없지요. 창가 쪽 테이블에는 언제나 만들기를 하는 꾸러기들이 눈에 띕니다. 다양한 종이접기와 상자를 이용한 만들기가 유행입니다.

옥수수과 가지, 방울토마토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방울토마토 8개를 처음으로 땀는데 생일을 맞으셨지만 아파서 집에 계신 교장선생님을 축하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8개 모두를 선물했습니다. 교장선생님을 위하는 아이들의 눈빛이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 교사 : 전향옥 >

어린이학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이 어린이학교 7, 8월 암송 말씀입니다. 3월부터 한 학년씩 동작을 만들었는데, 드디어 2학년 차례가 되어서 말씀과 어울리면서 참신한 동작을 만들고 말씀도 함께 외웠습니다.

배움과 가르침

이월영 교장선생님 생신 축하 시간을 하루 늦은 3일(월)에 가졌습니다. 코로나에 걸리셔서 비록 방충망을 사이에 두었지만, 진심을 담아 축하의 마음을 전해드렸습니다. 수요일에는 4학년 박윤아 어린이의 생일 축하가 있었는데요. 올해 어린이학교 생일 선물은 손목시계여서, 생일 축하 시간마다 ‘이번에는 어떤 색깔과 디자인의 시계일까?’ 기대하면서 선물을 풀어보고 함께 축하합니다.

목요일에는 장흥에 있는 장옥진미술관, 민복진미술관, 그리고 가나아트파크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조별로 다니면서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미술 작품들을 감상하고, 아름답게 꾸며진 공원을 거닐고, 놀이터에서 뛰어놀며 어린이들만의 여름 추억을 한 가지 더 만들어보았습니다.

지난 주중에는 유난히 아픈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복통, 고열, 구내염 등의 증상이 유행이고, 코로나도 다시 크게 유행 중입니다. 한 주 남짓 남은 이번 학기를 모두 건강하게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교사 : 전선희 >

멋쟁이학교

멋쟁이학교에서는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만나 학기를 마무리하는 기말 학생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성장과 성숙을 바라는 마음으로 전한 이야기들이 내면에 잘 받아들여지길 기대합니다. 그동안 멋쟁이들은 학생회의 주도에 따라 종강발표회 준비를 진행했는데, 그 와중에도 4학년의 해외문화탐방(미국) 보고회, 문서부의 코이노니아 신간 발행, 예술작 출품 등 다양한 활동도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모두가 최고의 멋쟁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종강발표회는 많은 웃음과 감동을 선사해주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마 날씨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식사들을 준비해주신 부모님의 사랑 덕분이지 않나 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속초로 종강여행을 떠납니다. 평소보다 하루 늦춘 월요일 저녁에 등교하여, 금요일까지 함께 지낼 예정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그리고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정태일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세요.

< 교사 : 이어진 >

풀 매주는 고마운 사람들

지구온난화가 확 실감나는 초여름을 보내고 있다. 갑자기 천둥이 치고 장대비가 내리다가 그치면, 이어서 태양빛이 따갑게 내리쬐는 아열대 같은 날씨를 겪고 있어서 말이다.

개인적으로 수박도 먹고, 옥수수도 먹고, 방학도 있고, 초록도 무성하고 해서 여름을 좋아하는 편인데, 하루가 다르게 자라가는 풀들을 보면 좀 섬뜩할 때도 있다.

올해 2월쯤인가 어린이학교 도서관 주변 나무들이 정리되어서 주변이 황량해졌었다. 안 그래도 비만 오면 그 앞에 작은 계곡이 만들어지는 곳인데 나무도 없어져서 고민스럽던 참에 몇몇 분들의 수고로 야자매트가 쪽 깔렸다. 그 길을 매일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잘 안다. 그 일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말이다. 그런데 이 길에 또 문제가 생겼는데, 그 주변으로 풀들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것이다. 주말만 보내고 가도 이를 어쩌나 싶을 정도로 각종 풀들이 또 쑥쑥 자라있다.

“선생님, 여기 정글이 생겼어요!”라고 학생들이 말하고, 덩굴풀에 굽히고, 게다가 뱀도 두어 번 출몰해서 심란했었는데, 금요일에 가보니 일대의 풀들이 싹 정리되어 있었다. 보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던지! 여름에 풀 베어주는 사람은 정말 고마운 사람이다!

풀매기 하면 생각나는 분이 또 있다. 거의 매일 이곳저곳의 풀을 정리해 주시는 분이다. 자그마한 몸으로 더운 날에도 매일 하셔서 “그만 하세요... 좀 쉬세요...”라고 말씀드리면 “얼마 안 했어요. 조금만 더하고 그만 할 거예요.” 하신다. 그 분이 말씀하게 풀을 뽑아주신 곳이 공동체 안에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엊그제 수업을 하러 가는 길, 운동장 끝자락에 예쁜 봉선화 꽃이 짙게 피었고, 도서관 가는 다리를 건너자마자 예초기로 말씀하게 정리된 어린이학교 뒤편 교실들을 보니 작은 감동이 일었다.

이 분들 외에도 공동체 안에는 계절 따라, 절기 따라, 또 여러 가지 행사 따라 귀한 손길들이 참 많다. 그 손길 덕분에 오늘도 우리의 눈과 마음이 시원해지니 이것이 기후위기시기에 잠시나마 더위를 날려주는 영혼의 냉면이며, 팔빙수가 아닐까 싶다.

그루터기사랑방 전선희 집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정다운 전도사

찬 송 : 397장, 365장

성 경 : 잠언 4장 23~27절

말 씬 : 마음을 지키십시오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강제복송 위기에 있는 탈북민들을 위해 >
코로나로 국경이 막혀 중국에 구금되어 있던 탈북민 2천여명이 강제 복송 위기에 있습니다. 중국이 유엔의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지켜 탈북민들이 복송되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한국공동체협의회>
1) 8월에 계획 중인 한마당 잔치의 준비를 위해
2) 각 공동체들이 받은 소명을 잘 감당하기를 위해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 위해
1) 몸이 아픈 지체들을 위해
2) 주일에 있을 공동체운영위원회를 위해

<생활공동체 소식 >

사랑방공동체 마당에 제초기 소리가 요란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풀들과 전쟁을 한판 벌이는 중입니다. 잘라내고 뽑아내도 잡초로 가득한 밭은 싹~ 갈아서 들깨를 심었습니다. 나집사님이 계셨다면 벌써 심었을 들깨 모종이 쑥 자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금요일과 토요일 새벽에 식구들이 나와 함께 들깨를 심었습니다. 들깨 향기 가득한 공동체의 아침은 풍성하기 그지없습니다.

한 주 내내 비소식이 있어서 걱정스럽지만, 이번 장마도 잘~지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 장영미 전도사 >